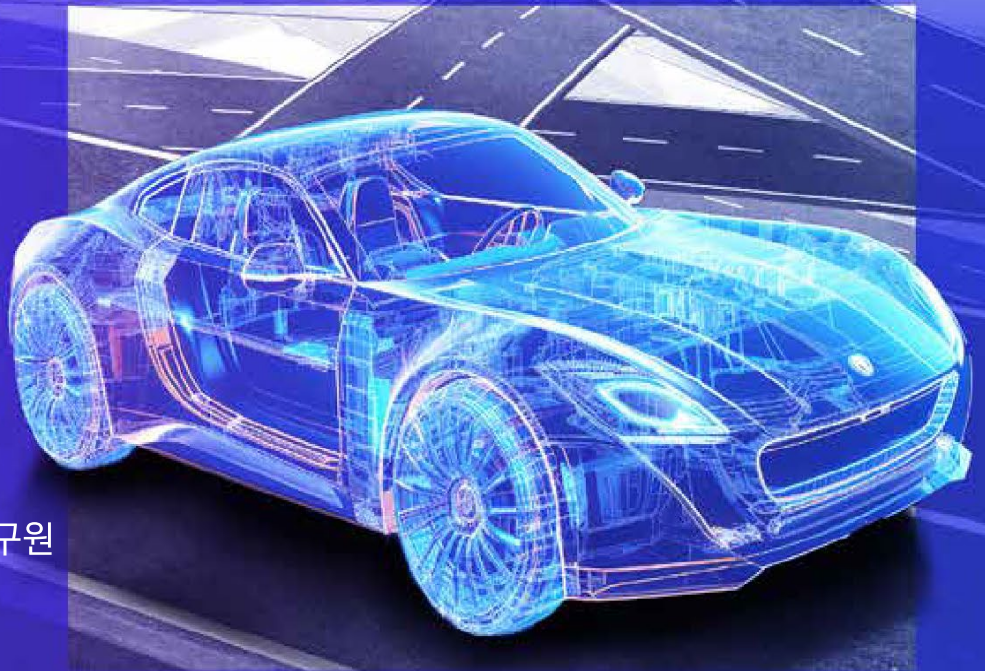


24<sup>th</sup> KPMG 글로벌 자동차 산업 동향 보고서

# Getting real about the EV transition

It's still an exciting—and rewarding—journey, but it may take longer, and the ride won't be smooth



삼성KPMG 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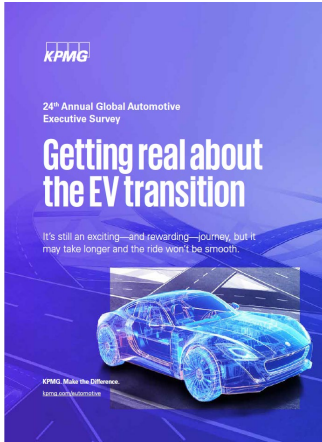
—  
[home.kpmg/kr](http://home.kpmg/kr)

# Contents

	Page
Overview	2
I. 글로벌 산업 전망	3
II. 파워트레인 –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먼 전기차 전환	4
III. 디지털 소비자 – 고객 경험이 핵심 요소	6
IV. 공급망 – Just in time 보다 Just in case	7
V. 기술 – 더욱 복잡해진 기술 과제에 직면	9
설문조사 결과 및 요약	11

본 보고서는 삼정KPMG 경제연구원과 KPMG Member firm 전문가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보고서에 포함된 자료의 완전성,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밟은 것은 아닙니다. 본 보고서는 특정 기업이나 개인의 개별 사안에 대한 조언을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 법인의 전문가와 상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정KPMG의 사전 동의 없이 본 보고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 배포, 인용, 발간, 복제할 수 없습니다.

- 전기차 발전,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역동적인 고객 경험 요구 →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 촉발
- 향후 5년 간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 유효하나, 수익성은 기존 예상보다 저조할 것으로 전망
- 전기차로의 전환, 보다 현실적 시각 대두... '30년 미·서유럽·중 시장 점유율 30~36% 예상



▲ 표지 클릭 시, 영문본 다운로드 가능

본 보고서는 KPMG Global이 발간한 “Getting real about the EV transition”을 삼정KPMG 경제연구원에서 한글 요약한 자료입니다.

## Overview

KPMG는 2023년 10월 전 세계 30개국 1,041명의 자동차 및 관련 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 보고서인 ‘24th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를 발간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전기차의 발전,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더욱 역동적이고 생생한 고객 경험 요구 증대 등으로 인해 촉발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에 직면한 것을 재확인했다. 이는 자동차 제조 공장부터 온라인 상거래 사이트 및 showroom에 이르기까지 SI를 비롯한 신기술이 자동차 제조 → 판매 → 서비스 과정을 모두 바꾸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산업 흐름이 역동적으로 변하는 상황에서, 경영진의 의사결정은 점차 신중해지고 있다. 경영진은 자사가 미래 자동차 산업에서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적 질문에 대해 올바른 답을 찾는 것은 향후 기업이 미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지 결정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다.

### 삼정KPMG 경제연구원

김나래  
수석연구원  
T 02-2112-7095  
E nkim15@kr.kpmg.com

정미주  
책임연구원  
T 02-2112-4802  
E mijujung@kr.kpmg.com

엄이슬  
책임연구원  
T 02-2112-3918  
E yeom@kr.kpmg.com

- 전기차 시장은 일시적 둔화를 겪는 것인가 아니면 시장이 재조정되는 것인가
- 정부는 앞으로 전기차 구매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인가
- 하이브리드·수소연료전지 등의 다른 동력원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 시장 변화, 새로운 경쟁자 등장, 완성차 제조사의 요구 증대 등으로 인해 압박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사들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어떤 전략을 수립해야 하는가
- 완성차 제조사는 차량 OS(Operating System), 배터리 공급망, 차량 반도체 등과 같은 분야까지 밸류체인을 수직통합해야 하는가

이제 글로벌 자동차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제품은 물론이고, 자사 비즈니스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순간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도전 과제들을 극복해야만 한다. 산적해 있는 도전 과제를 극복하는 여정에 본 보고서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01 글로벌 산업 전망

향후 5년 간 자동차 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며 성장할 것이라 확신하는 경영진의 비중은 2022년 41%에서 2023년 34%로 감소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경영진은 향후 5년 간 자동차 산업이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며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모습이다. 설문조사 결과,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성장성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내보이던 임원진 비율이 2022년 조사에서는 4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올해 조사에서는 34%로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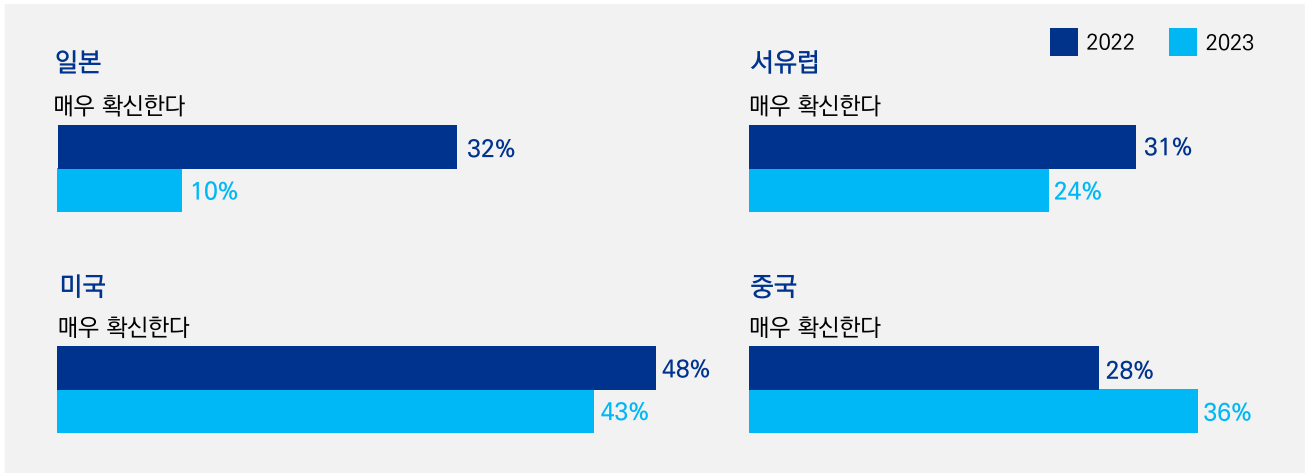
국가별로 보면 일부 국가에서는 그 비율이 더욱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일본의 경우, 자동차 산업 임원진 중 10%만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향후 5년 간 수익성 높게 성장할 것임을 매우 확신한다고 대답했는데 이는 2022년 32%에서 22%p나 떨어진 수치다. 서유럽과 미국 시장 내 임원진 역시 각 나라에서 자동차 산업이 향후 5년 간 높은 수익을 내며 성장할 것이라 확신하는 비중이 감소하긴 마찬가지다.

2022년 조사에서는 자동차 산업의 미래 성장세와 관련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는데, 1년 만에 분위기가 급변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러한 우려가 나온 배경은 비교적 명확하다. 전통적인 완성차 제조사는 전기차로의 전환에 막대한 투자를 단행했다. 그러나 투자 성과는 단 시간 내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새로운 전기차 모델은 시장에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반해, 전기차 수요는 이전 대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다만, 중국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 중국의 자동차 산업 임원진 중 36%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향후 5년 간 높은 수익을 내며 성장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작년 28% 대비 8%p 증가한 것이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연간 자동차 판매 목표량을 증가시키며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원가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 등에 수출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이 오히려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 글로벌 산업 전망 관련 주요 문항과 결과 ]

Q 향후 5년 내 각 국의 자동차 산업이 더욱 높은 수익성을 달성하며 성장할 것이라고 얼마나 확신하는가?



Source: 24th GAES, KPMG International



## 02 파워트레인 –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먼 전기차 전환

2030년 국가별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점유율 전망 시, 중국이 36%로 가장 높고, 미국, 일본, 서유럽이 그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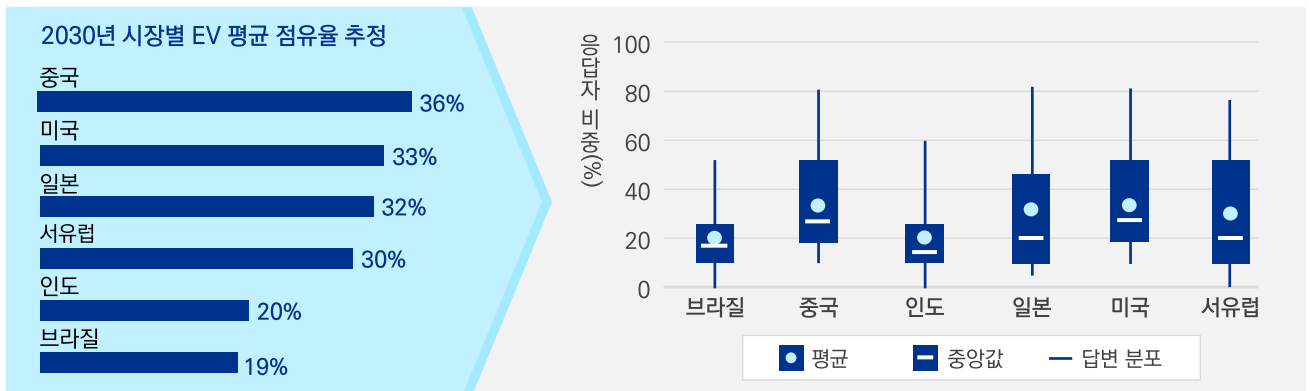
2년 전만 해도, 2030년 전기차가 신차 판매량에서 차지할 비중에 대한 답변은 20%에서부터 80%까지 천차만별이었다. 그러나 2023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범위가 상당히 좁혀졌는데, 이는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경영진들이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에 대해 보다 성숙하고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은 2030년 신차 판매량에서 약 36%를 전기차가 차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국가일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들은 미국, 일본, 서유럽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30%~33% 수준일 것이라 예상했다. 이러한 전기차의 시장 점유율은 미국의 기후관련 연구기관인 RMI (The Rocky Mountain Institute)가 2023년 하반기에 2030년 전 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2/3 이상이 전기차일 것이라고 예측한 것<sup>1)</sup>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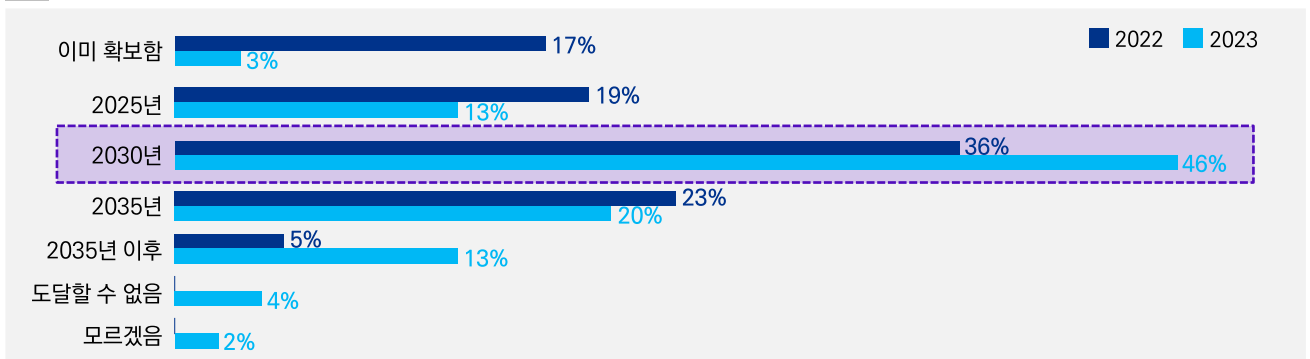
한편 자동차 산업 경영진은 보조금 없이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하는 시점이 더 지연될 것으로 보고있다. 2022년 조사 대비, 전기차 가격경쟁력 확보 시점을 2025년으로 응답한 비중은 줄고, 2030년으로 응답한 비중은 늘었다.

### [ 파워트레인 관련 주요 문항과 결과 (1/2) ]

Q 2030년에 전기차(하이브리드 제외)가 각 시장 신차 판매량에서 얼마만큼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하는가?



Q 전기차가 보조금 없이 내연기관차와 동등한 가격경쟁력<sup>2)</sup>을 확보하는 시점을 어떻게 예상하는가?



Source: 24<sup>th</sup> GAES, KPMG International

Note 1): Green Car Reports, Stephen Edelstein (September 22, 2023), Note 2): cost/affordability parity

Note 2): 일부 그래프에서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결과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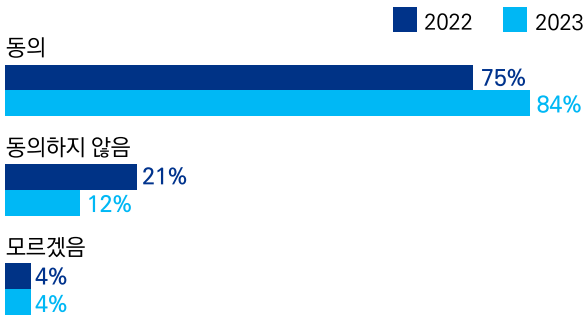
**경영진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에 강력한 지지를 보냄과 동시에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는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고 응답**

전기차 전환에 있어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과 충전 인프라 구축 수준이다. 우선, 전기차 구매 보조금 정책과 관련하여, 자동차 산업 경영진은 예년에 비해 더욱 강력한 지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에는 75%의 경영진이 소비자에게 전기차 구매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나타났던 반면, 2023년 조사에서는 84%의 경영진이 동의했다. 특히 고가의 전기차 모델까지 포함해 모든 전기차에 보조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응답한 경영진의 비중은 2022년에는 21%였으나 2023년에는 30%로 훨씬 더 늘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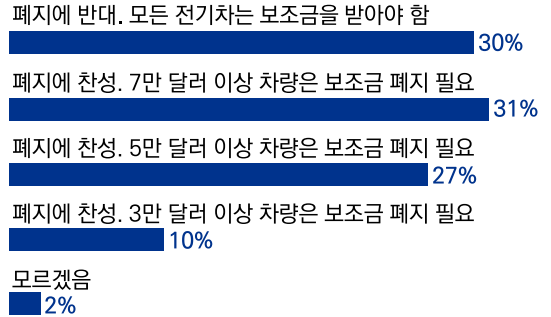
두 번째 화두는 충전 인프라 구축 수준이다. 전기차 충전 시장은 아직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지만 개별 기업으로 본다면 테슬라가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전기차 충전 시장 내 높은 경쟁력을 가진 주체로 전기차 충전 기업(19%), 전력 유틸리티(19%), 테슬라 수퍼차저(17%), 정유 기업/주유소(17%), 완성차 제조사 또는 컨소시엄(14%), 딜러사(14%)로 대동소이한 결과를 보였으나 개별 기업으로 본다면 테슬라의 비중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 파워트레인 관련 주요 문항과 결과 (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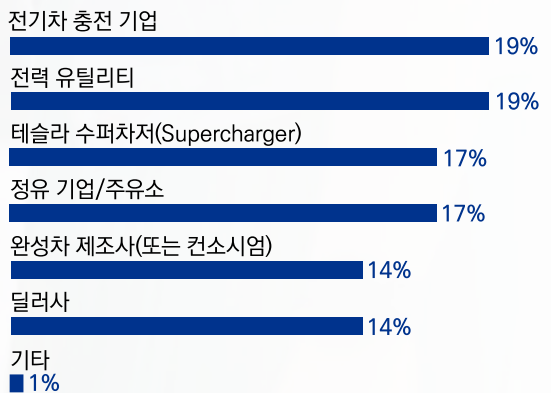
**Q 일부 국가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해 동의하는가?**



**Q 일정 금액 이상인 고가 전기차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폐지해야 하는가?**



**Q 전기차 충전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함에 있어 가장 높은 경쟁력을 가진 주체는 누구인가?¹)**



Source: 24th GAES, KPMG International  
 Note 1): 일부 그래프에서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결과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 03 디지털 소비자 – 고객 경험이 핵심 요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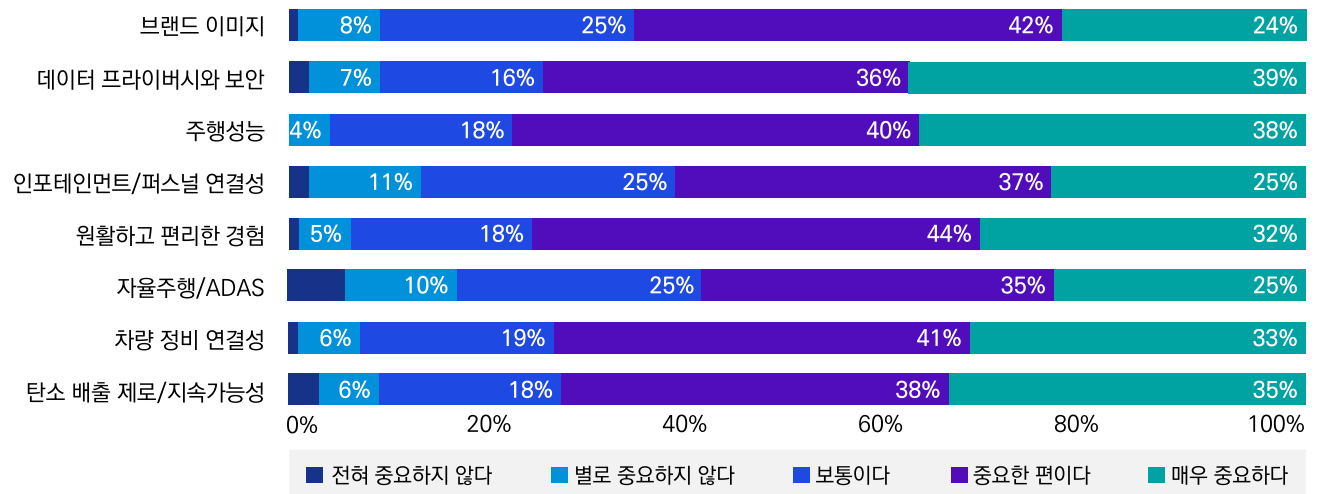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결정에 주행성능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예상되고, 차량에 대한 고객경험이 그 뒤를 이으며 주요 요인으로 부상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 결정 시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능에 대해서 경영진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경영진은 우선 주행성능이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 설문조사 결과, 주행성능이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결정 요소로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경영진 비중은 38%, 중요하다고 응답한 비중은 40%로 나타났다. 또한 원활하고 편리한 경험도 자동차 구매 결정 요인으로 매우 중요 또는 중요하다고 꼽은 경영진이 각각 32%, 44%로 집계되며 주행성능과 더불어 주목받고 있음이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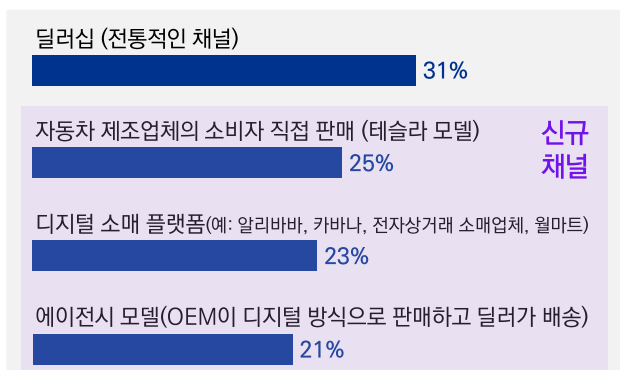
한편, 2030년까지 신차의 69%가 온라인 소매 플랫폼이나 자동차 제조업체에 의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것으로 경영진은 예측했다. 또한 64%의 경영진은 충전, 자동차 정비 및 주행보조시스템(ADAS)과 같은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소비자가 월간 구독료를 기꺼이 지불할 것으로 매우 확신 또는 확신하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 [ 디지털 소비자 관련 주요 문항과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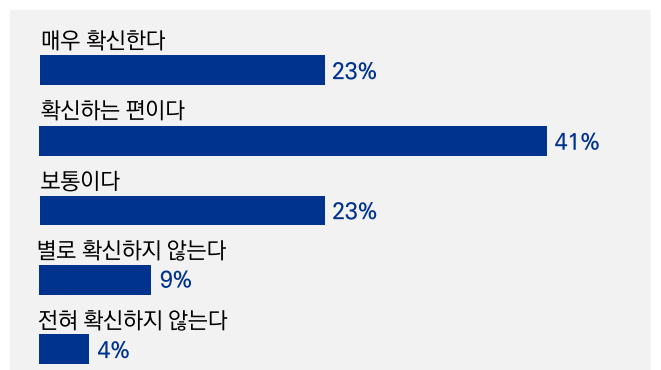
Q 향후 5년 내 소비자가 자동차 구매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할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는 무엇인가?



Q 2030년에 자동차 제조업체 직접 판매 채널 등 신규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될 신차의 비중은?



Q 소비자가 소프트웨어 서비스, 충전, 자동차 정비 등에 월간 구독료를 기꺼이 지불할 것이라고 확신하는가?¹)



Source: 24<sup>th</sup> GAES, KPMG International

Note 1): 일부 그래프에서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결과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 04 공급망 – Just in time보다 Just in c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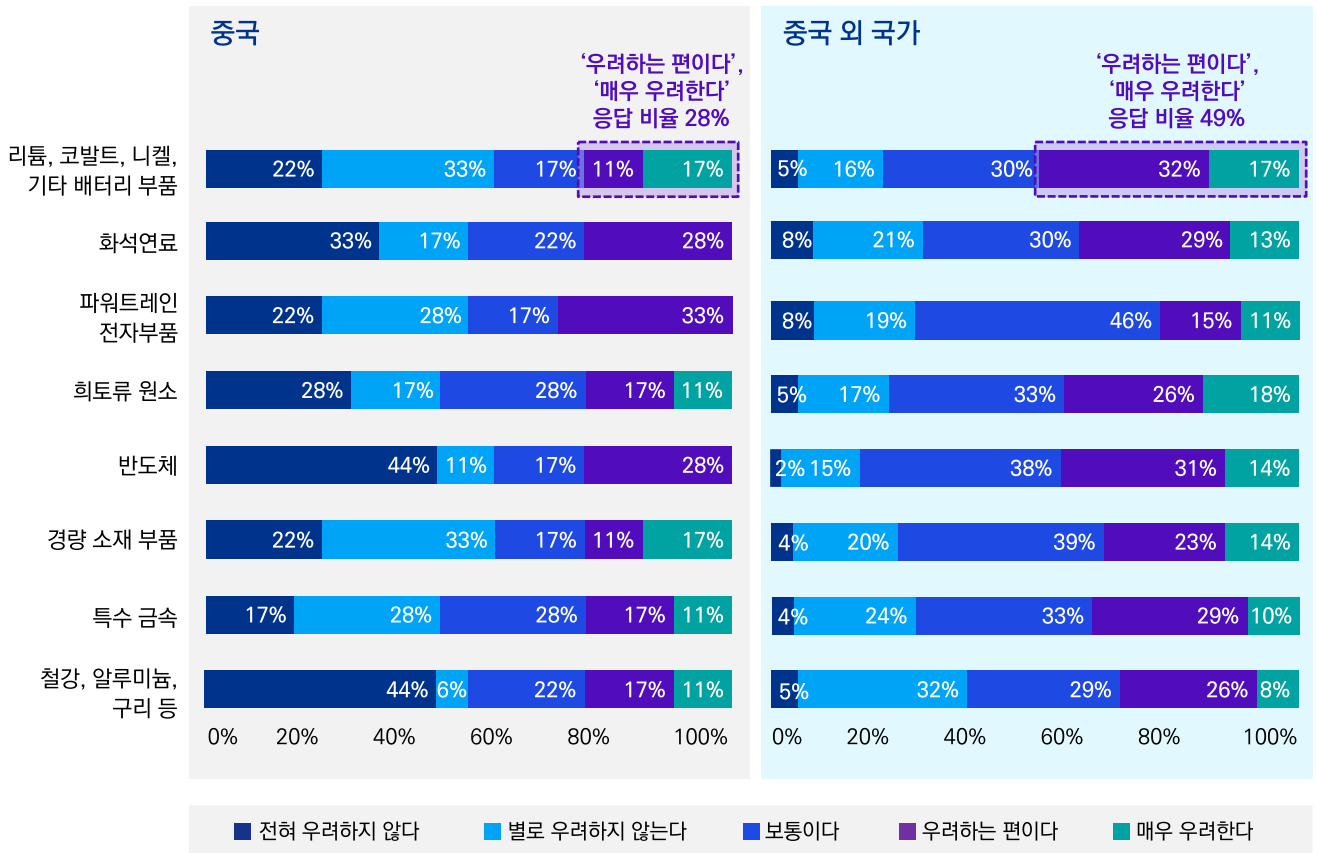
중국과 달리  
글로벌 자동차 산업 경영진은  
리튬, 코발트, 니켈, 기타  
배터리 부품 공급에 대한  
우려가 높은 편

중국과 중국 외 국가에서 원자재 및 부품 공급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 경영진의 40% 이상이 화석연료, 희토류 원소, 반도체 공급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우려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특히 리튬을 포함하여 코발트, 니켈, 기타 배터리 부품 공급에 대해 우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집계되며, 가장 우려되는 분야로 드러났다. 반면에 파워트레인 전자부품의 경우 매우 우려 또는 우려하는 비율은 26%로 가장 낮았다.

중국 경영진은 리튬, 코발트, 니켈, 기타 배터리 부품 공급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우려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중국 외 국가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원자재를 보유하며 타 국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데 기인한다. 따라서 중국의 경영진은 공급망 안정성 또는 탄력성에 타 국가 대비 비교적 높은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파워트레인 전자부품의 경우 중국에서는 33%의 경영진이 우려한다고 답함으로써 가장 우려하는 분야로 드러났다.

## [공급망 관련 주요 문항과 결과 (1/2)]

Q 향후 5년간 다음의 원자재 및 부품 공급 안정성에 대하여 얼마나 우려하는가?<sup>1)</sup>



Source: 24th GAES, KPMG International

Note 1): 일부 그래프에서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결과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 원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새로운 소싱 채널을 발굴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성을 도모하는 한 가지 방법일 뿐입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선물(Futures), 옵션(Options), 스왑(Swaps)과 같은 금융 상품 기반 헤징(Hedging)을 통해 원자재 가격 변동 관련 리스크를 상쇄해야 보다 예측 가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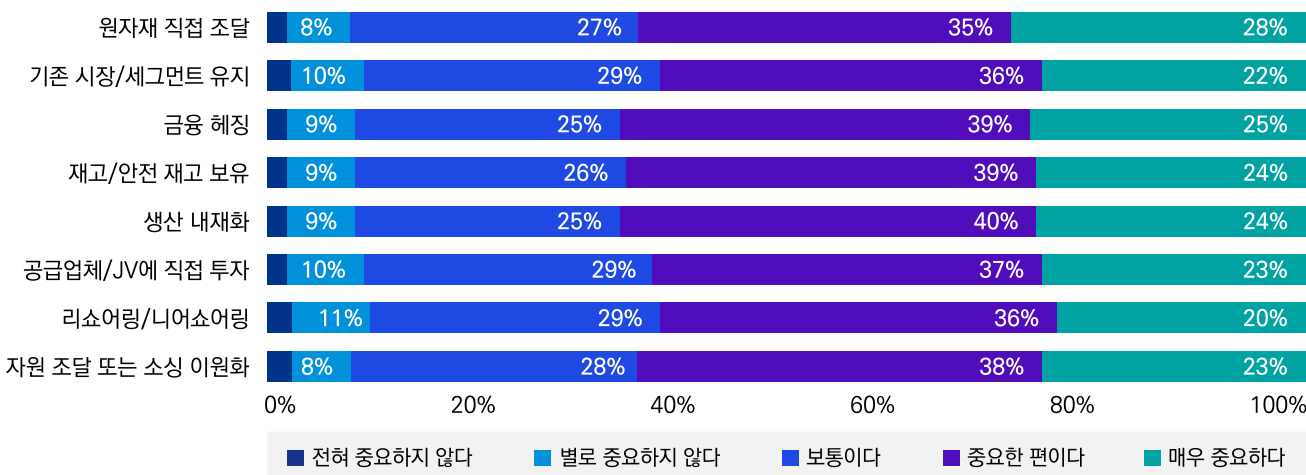
위승훈 (Seung-Hoon Wi)  
Partner, Industrial Manufacturing,  
Samjong KPMG(KPMG in South Korea)

팬데믹으로 인한 혼란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은 원자재 직접 투자, 부품 제조업체와의 합작 투자, 광산 지분 확보 등을 통해 원자재 공급망을 확보하는 데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기업들은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Just in case” 방식(다양한 경우의 수를 고려하며 시뮬레이션으로 접근)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최근 미래 공급망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금융 헤징, 생산 내재화 등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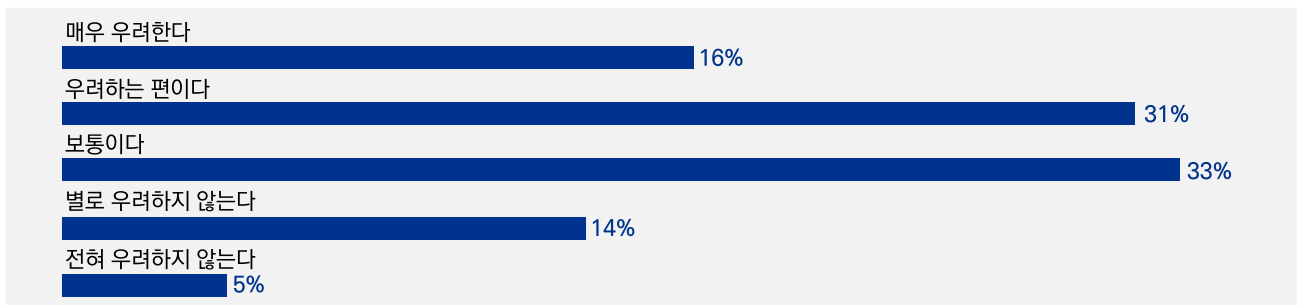
한편, 최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향후 12개월 간 자사 비즈니스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우려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7%로 집계되며 지난 설문결과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공급망 관련 주요 문항과 결과 (2/2) ]

Q 향후 자사의 공급망 전략에서 다음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가?



Q 최근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 향후 12개월 동안 비즈니스에 미칠 악영향에 대하여 얼마나 걱정하는가?<sup>1)</sup>



Source: 24th GAES, KPMG International

Note 1): 일부 그래프에서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결과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 05 기술 - 더욱 복잡해진 기술 과제에 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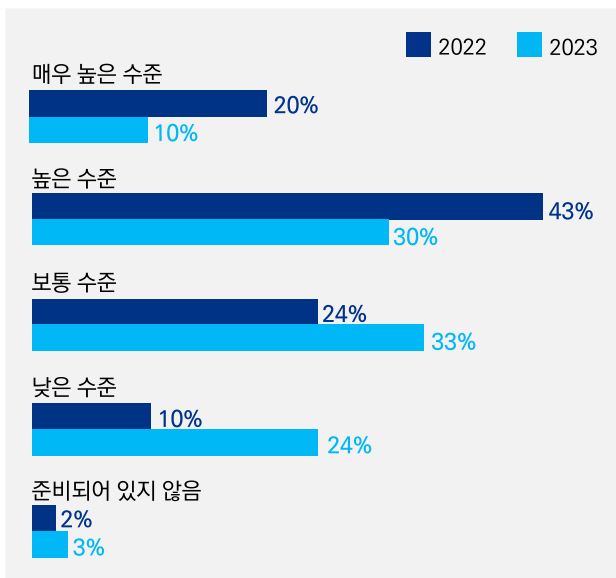
경영진은 첨단 제조 기술에 주목하는 가운데, 향후 수 년 동안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가 가장 중요해질 것으로 응답

2023년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는 인공지능(AI)을 비롯, 디지털 트윈(digital twin, 기계·장비·사물 등을 가상세계에 구현), 로봇틱스 등 다양한 첨단 제조 기술이 주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산업의 경영진은 이러한 첨단 제조 기술에 대한 자사의 준비도가 예년에 비해 더 떨어진 것으로 파악하는 분위기다. 첨단 제조 기술에 대한 준비도가 '매우 높은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이라고 대답한 경영진의 비중은 2023년 조사에서 2022년 조사 대비 약 23%p 하락했다. 기술적 난이도가 높고 상당한 역량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 내 기업들은 한계를 체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3년에는 새로운 AI 시스템이 급증했으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첨단 기술을 자사에 도입하는 데 미흡했다고 판단하였다. 최근 산업을 막론하고 거의 모든 기업이 생성형 AI(Generative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데, 이는 다양한 부서의 직원들이 AI를 업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직원들이 AI를 업무의 도구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려면, 기업 차원에서 업무의 역할을 재설계하고 직원들을 훈련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AI 활용 측면에서 적합한 인재를 새로 채용하는 일 등이 수반되어야 한다. 자동차 산업 역시 AI를 기업 내 도입하기 위해서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다. 경영진은 향후 수 년 동안 비즈니스에서 인공지능(AI)/자율주행(AV)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했는데, 이는 예년에 AI 역량의 중요도가 3위에 그쳤던 것에 비하면 그 중요성이 매우 상향되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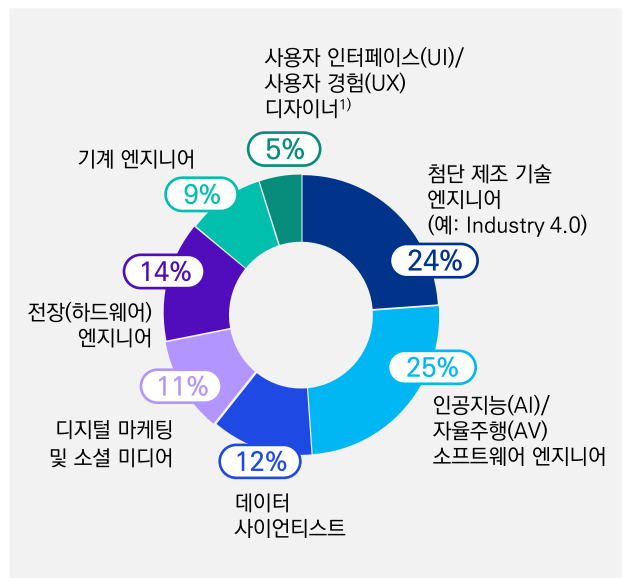
## [ 공급망 관련 주요 문항과 결과 (2/2) ]

Q 자사의 첨단 제조 기술(예: 인공지능, 머신러닝, 디지털 트윈, 로봇틱스 등) 준비 수준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Source: 24th GAES, KPMG International

Q 향후 몇 년 동안 자사의 비즈니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직무/역량은 무엇인가?



Source: 24th GAES, KPMG International  
 Note 1): UI(User Interface, 사용자 인터페이스), UX(User Experience, 사용자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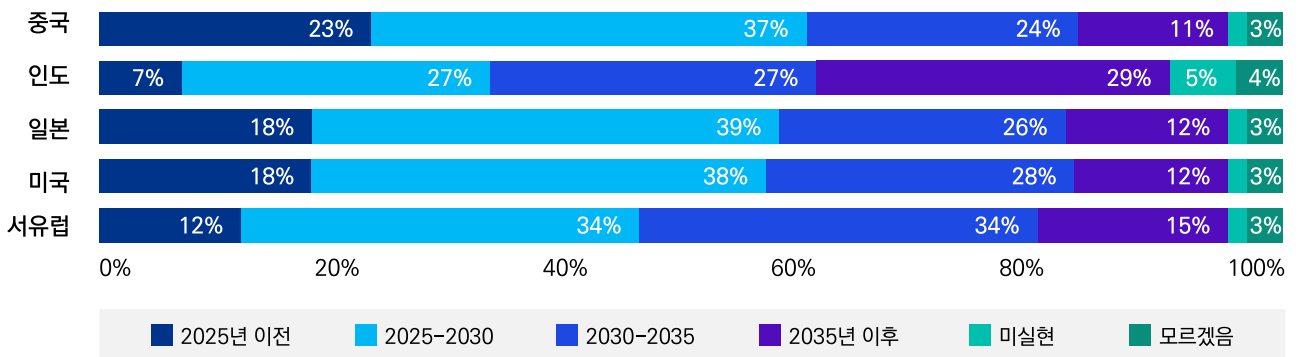
자율주행 기반ライド 헤일링 및 배달 분야는 기존 예상 대비 더 빠르게 도입,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기존 예상 대비 지연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

자동차 산업에서 나타난 신기술 분야로 자율주행 기반ライド 헤일링(ride hailing, 호출형 차량공유서비스) 및 배달 분야를 들 수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 산업의 경영진은 주요 도시에서 자율주행 기반ライド 헤일링 및 배달 서비스가 더욱 빠르게 도입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30년까지 미국, 일본, 중국, 독일에서 자율주행 기반ライド 헤일링 및 배달 서비스가 실현될 것이라 기대하는 임원진의 비중은 예년 조사에 비해 약 4~9%p 증가했다. 다만, 인도의 경우 이를 기대하는 임원진의 비중은 타 국가 대비 상당히 낮게 도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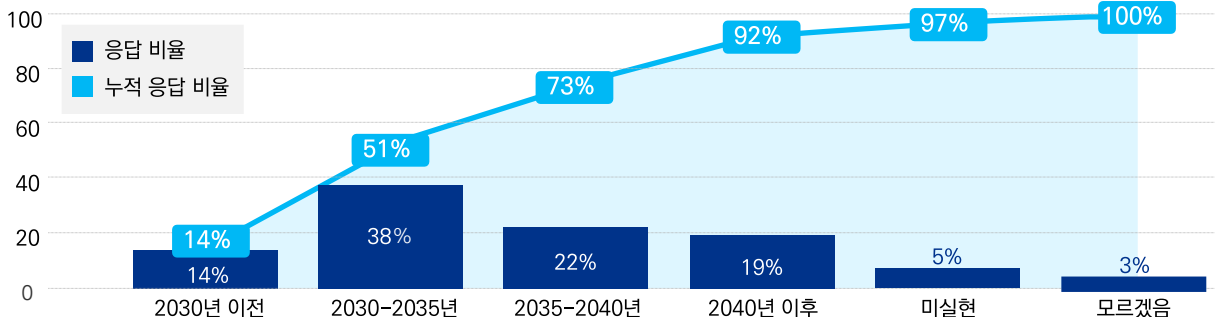
자동차 산업 내 신기술 분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도 있다.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전기동력수직이착륙기(eVTOLs,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로도 알려져 있는데, 2023년 설문조사에서 경영진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의 실현 시점이 2022년 설문조사 때 예상 시점보다 더욱 지연될 것으로 응답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2030년 이전에 중국 내 주요 도시에서 도심 항공 모빌리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는 임원진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기술 관련 주요 문항과 결과 (2/2) ]

Q 주요 시장에서 자율주행 기반ライド 헤일링 또는 배달 서비스가 언제 상용화될 것으로 예상하는가?<sup>1)</sup>



Q 많은 자동차 제조사로부터 막대한 투자를 받고 있는 전기동력수직이착륙기(eVTOLs,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aircraft)는 주요 도시에서 언제부터 이용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가?<sup>1)</sup>








Source: 24th GAES, KPMG International

Note 1): 일부 그래프에서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결과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 설문조사 결과 및 요약

본 설문조사를 통해 자동차 산업은 불확실성이 보다 대두되며 숨을 고르는 시기를 지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으나, 자동차 산업의 경영진은 전반적인 산업의 성장세를 기대하면서도, 기존 전망보다는 수익성 높은 성장을 달성할 확률이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한 전기차 전환 시점 측면에서도 구매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라 기존 예상 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불확실성이 드러나는 시기임에도, 자동차 산업의 경영진은 미래를 위한 준비에는 여념이 없었다. 고객경험이 핵심으로 등장한 디지털 소비자에 대한 대응, 다양한 시물레이션에 입각한 공급망 전략 다각화,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분야 인재 발굴 등을 중요한 아젠다로 선별하며 강조했다.

## [ 24th GAES 설문조사 주요 결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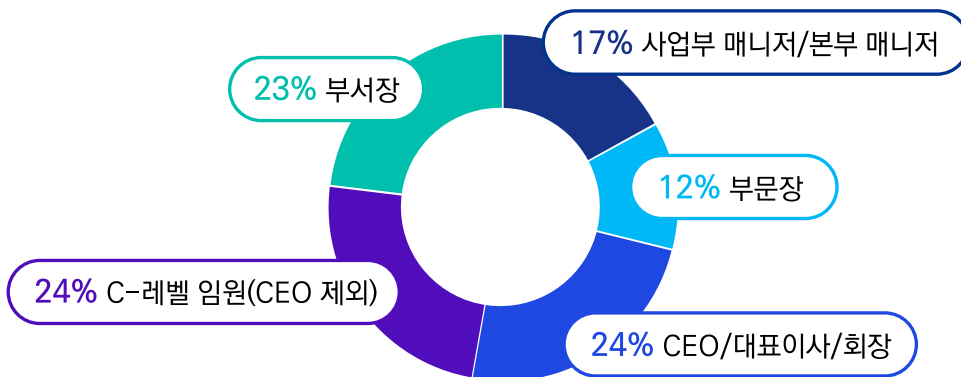
 <p>글로벌 산업 전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향후 5년 간 자동차 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며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경영진 비율이 2022년 41%에서 2023년 34%로 하락하며 자신감이 다소 위축된 상황</li> <li>단, 중국은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높은 수준의 수익성을 바탕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비중이 2022년 28% 대비 2023년 36%로 증가</li> </ul>
 <p>파워트레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30년 국가별 신차 판매량 중 전기차 점유율에 대해 중국이 36%로 가장 높고 미국, 일본, 서유럽은 30~3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li> <li>보조금 정책과 충전 인프라 관심 지속. 경영진은 보조금 정책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보냄과 동시에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는 주도권 다툼이 치열하다고 응답</li> </ul>
 <p>디지털 소비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진이 소비자의 자동차 구매 결정 요인으로 매우 중요 또는 중요하다고 가장 많이 응답한 기능은 '주행성능'인 가운데, '원활하고 편리한 경험',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보안'이 그 뒤를 이음</li> <li>2030년 69%의 신차는 온라인 플랫폼 등 신규 채널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될 것으로 예측. 경영진 중 64%, 소비자가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구독료를 지불할 것이라는 데 매우 확신 또는 확신</li> </ul>
 <p>공급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진의 40% 이상은 리튬, 코발트, 니켈, 기타 배터리 부품을 포함하여 화석연료, 희토류 원소, 반도체 공급 안정성에 대한 우려 표출</li> <li>기업들은 원자재 및 부품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금융 해징, 생산 내재화 등의 다양한 전략 고려</li> </ul>
 <p>기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영진은 첨단 제조 기술(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에 주목하는 가운데, 향후 수 년 동안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분야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 응답</li> <li>자율주행 기반 라이드 헤일링 및 배달 분야는 기존 예상 대비 빨리 도입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도심 항공 모빌리티는 대체로 기존 예상 대비 늦게 실현될 것으로 전망</li> </ul>

Source: 24th GAES, KPMG Internation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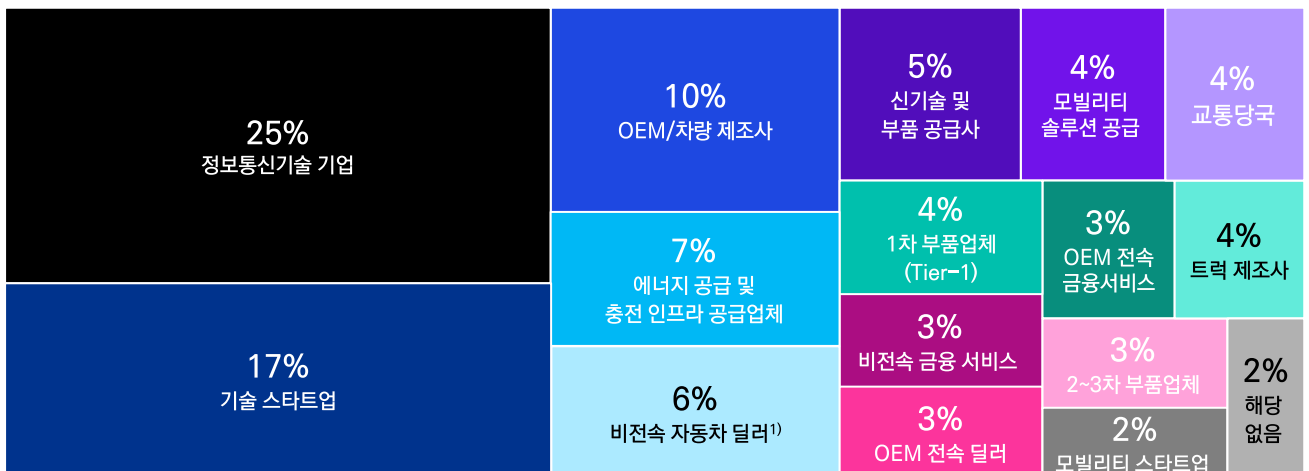
## [참고] 응답자 구성

KPMG는 2023년 10월 자동차 및 관련 산업 분야의 경영진 1,04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는 기업의 CEO/대표이사/회장(24%)과 C-레벨 임원(24%, CEO 제외)이 가장 많았는데 이 두 직급의 비중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조사 대상 지역은 미국(277명), 서유럽(314명), 중국(154명)을 중심으로 북미, 남미, 동유럽, 인도 및 아세안, 동북아시아(한국, 일본) 등 다양한 지역을 아울렀다. 한국의 경우 총 25명이 본 조사에 참여했는데, 2022년 조사 대상 인원이었다면 12명에서 두 배 넘게 증가한 수치다. 설문조사에 응한 경영진이 속한 회사 매출 규모의 경우, 2022년 연간 매출 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인 기업이 8.5%, 10억 달러~100억 달러 수준인 기업이 22.6%, 5억 달러~10억 달러 수준인 기업이 22.9%, 5억 달러 미만인 기업이 26%, 1억 달러 미만인 기업이 18.1%로 집계되었다. 또한 업종으로 구분 시, 정보통신기술 기업(25%), 기술 스타트업(17%), OEM/차량 제조사(10%) 등의 순서를 보였다.

### [ 응답자 구성 - 직책/직함별 비중 ]



### [ 응답자 구성 - 업종별 비중 ]



Source: 24<sup>th</sup> GAES, KPMG International

Note 1): 특정 OEM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이나 법인이 독립적으로 자동차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행태를 의미

# Business Contacts

## 자동차 산업 전문팀

위승훈  
부대표  
T 02-2112-0620  
E swi@kr.kpmg.com

변재준  
전무  
T 02-2112-0828  
E jbyun@kr.kpmg.com

이주한  
전무  
T 02-2112-0517  
E juhanlee@kr.kpmg.com

강성채  
전무  
T 02-2112-0635  
E sungchaekang@kr.kpmg.com

신동준  
전무  
T 02-2112-0885  
E dongjunshin@kr.kpmg.com

김재연  
전무  
T 02-2112-0206  
E jaeyeonkim@kr.kpmg.com

전현호  
상무  
T 02-2112-0638  
E hyunhojeon@kr.kpmg.com

이종상  
상무  
T 02-2112-7096  
E jongsanglee@kr.kpmg.com

박경호  
상무  
T 02-2112-7838  
E kyunghopark@kr.kpmg.com

김현석  
상무  
T 02-2112-3245  
E hyunsukkim@kr.kpmg.com

강희석  
상무  
T 02-2112-6739  
E heeseokkang@kr.kpmg.com

백명종  
상무  
T 02-2112-3285  
E mbaek@kr.kpmg.com

home.kpmg/kr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